

Part 3

2021 주요결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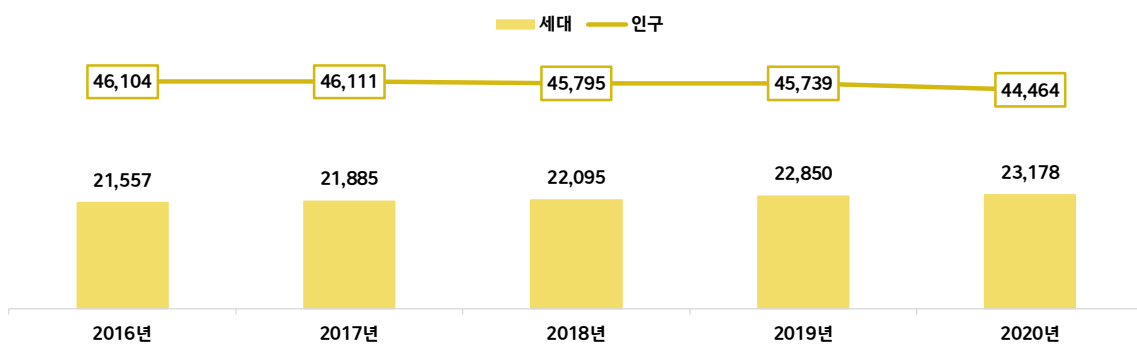
- 1 인구 항목
- 2 시도 공통항목
- 3 전라남도 항목
- 4 장성군 특성항목

1. 인구 항목

- ▶ 2020년 ‘남자’는 22,781명으로 전년대비 708명(3.01%) 감소, ‘여자’는 21,683명으로 전년 대비 567명(2.55%) 감소함. 장성군 주민등록인구는 44,464명으로 전년 대비 1,275명(2.79%) 감소, 세대수는 23,178세대로 전년 대비 328세대(1.44%) 증가함
- ▶ 남녀 인구 구성비는 ‘남자’의 경우 51.2%로 2019년 대비 0.2%p 하락하였고 ‘여자’는 48.8%로 2019년 대비 0.2%p 상승함

《 인구수와 세대수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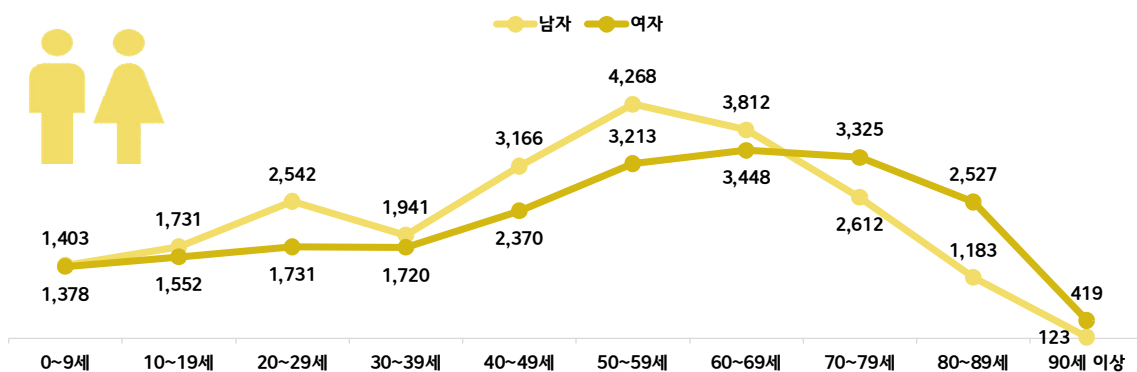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, 세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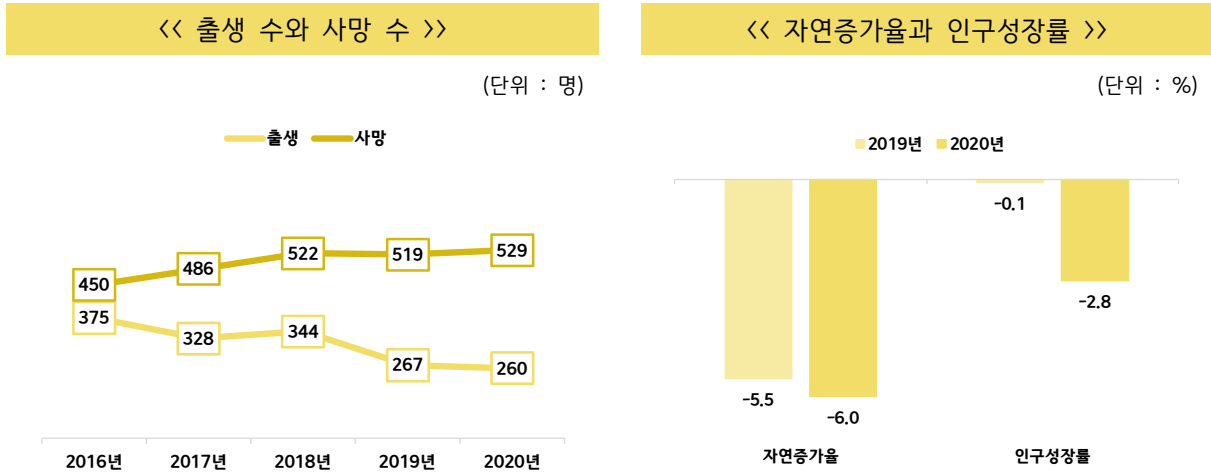
- ▶ 2020년 장성군의 연령별 인구는 0~9세(2,781명), 10~19세(3,283명), 20~29세(4,273명), 30~39세(3,661명), 40~49세(5,536명), 50~59세(7,481명), 60~69세(7,260명), 70~79세(5,937명), 80~89세(3,710명), 90세 이상(542명)으로 나타남
- ▶ 성별 구성비의 경우 남자는 50~59세(9.6%)에서 가장 높고 여자는 60~69세(7.8%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70대 미만까지는 남자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70대 이상부터는 여자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남

《 성별 및 연령별 인구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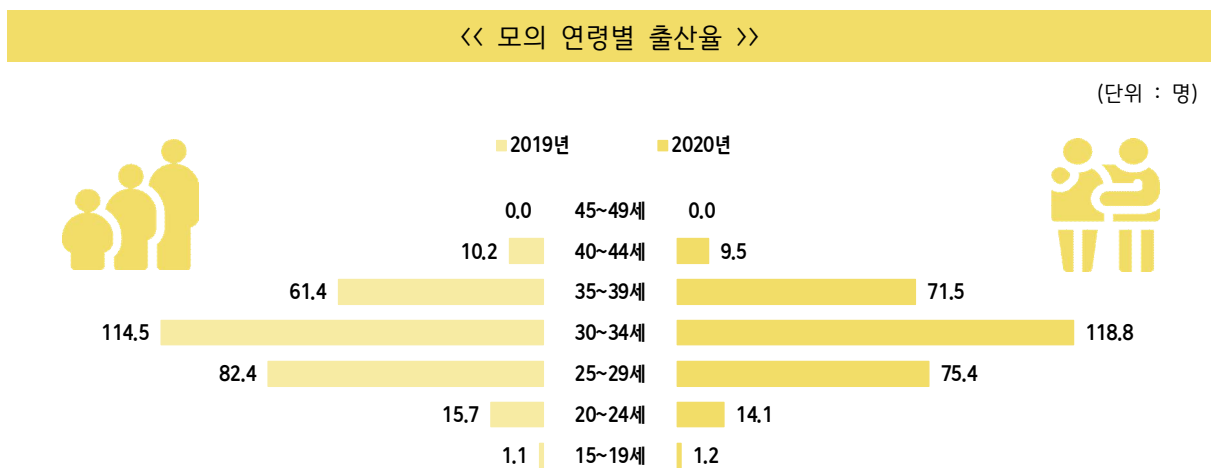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

- ▶ 2020년 출생 수는 전년(267명) 대비 7명 감소한 260명, 사망 수는 전년(519명) 대비 10명 증가한 529명으로 나타남. 2016년 이후로 출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, 사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2020년 자연증가율은 천 명당 -6.0%으로 전년(-5.5%) 대비 0.5%p 감소, 인구성장률은 천 명 당 -2.8%로 전년(-0.1%) 대비 2.7%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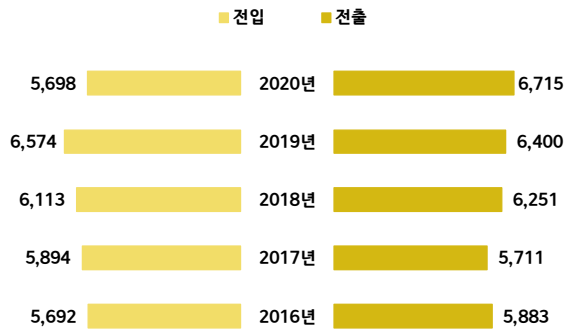
- ▶ 2020년 장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.509명으로 전년(1.429명) 대비 0.08명 증가했고 연령별 출산율(71.5명)은 전년(61.4명) 대비 '35~39세'가 10.1명 상승함. 연령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'30~34세'는 해당연령 인구 천 명당 118.8명으로 전년(114.5명) 대비 증가했음.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'15~19세', '30~34세'와 '35~39세'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

- ▶ 2020년의 순이동은 -1,017명으로 전년대비 1,191명 감소했고 이동률은 2.7%p 감소함. 전입인구는 5,698명으로 전년(6,574명) 대비 876명 감소했고 전입 이동률은 1.6%p 감소하고 전출인구는 6,715명으로 전년(6,400명) 대비 315명 증가했고 전출 이동률은 1.1%p 증가함
- ▶ 전입인구의 이동률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2020년에 하락했고 전출인구의 이동률은 2017년에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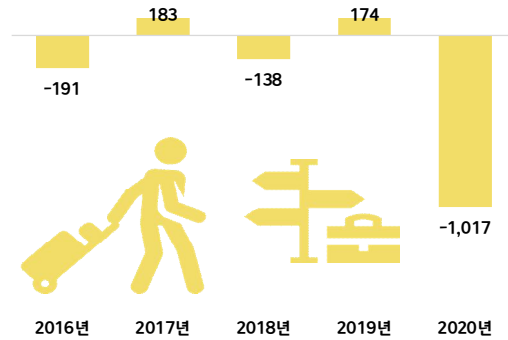
◀ 연도별 전입 및 전출인구 ▶

(단위 : 명)



◀ 연도별 순이동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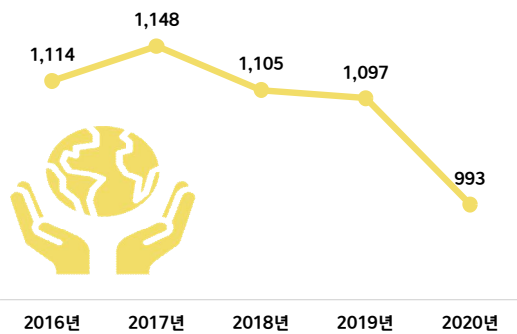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

- ▶ 2020년 외국인 인구는 933명으로 전년(1,097명) 대비 1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외국인 남자인구는 618명으로 전년(694명) 대비 76명 감소하고 여자인구는 375명으로 전년(403명) 대비 28명 감소함.
- ▶ 국적별 경우 베트남 인구가 31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(106명), 중국(42명) 순으로 나타남. 전년도 대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외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베트남 출신 외국인 인구가 2019년(343명) 대비 2020년(319명)에 24명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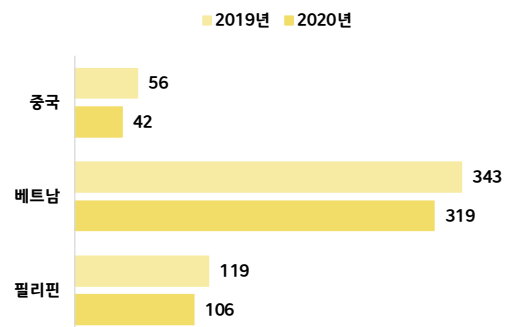
◀ 연도별 외국인 인구 ▶

(단위 : 명)



◀ 연도 및 국적별 외국인 인구 3순위 ▶

(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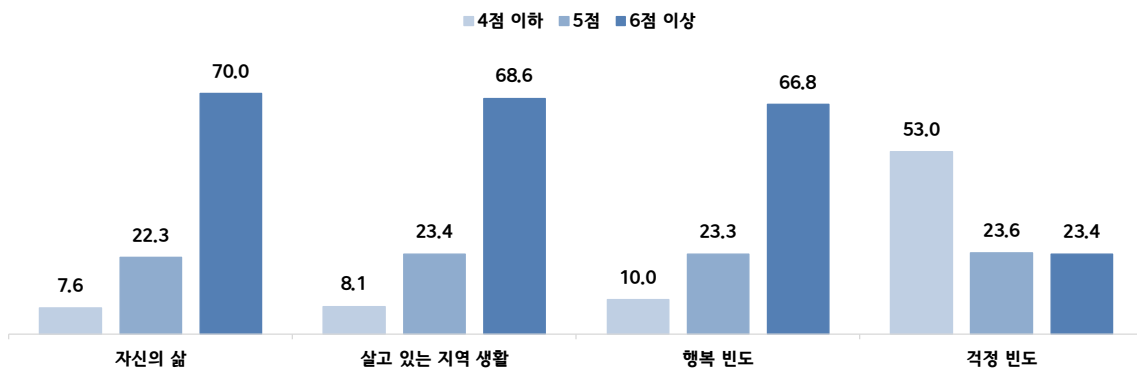


2. 시도 공통항목

- ▶ 군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는 6.6점으로 조사됨.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과 행복 빈도는 평균 6.5점, 걱정 빈도는 평균 4.1점으로 나타남.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(6점 이상)하는 군민이 70.0%로 많았고 행복 빈도는 66.8%, 살고 있는 지역 생활은 68.6%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함

« 삶에 대한 만족감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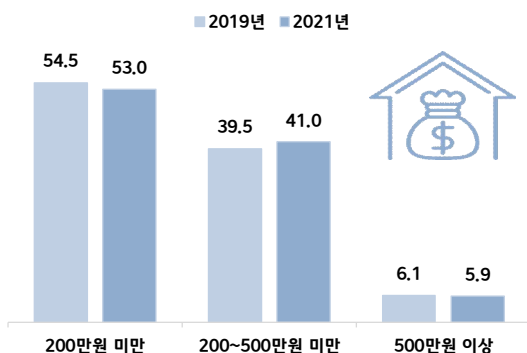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가구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 비율은 46.9%, '200만원 미만'의 비율은 53.0%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이 고액(500만원 이상)인 군민은 5.9%로 나타남. 남자는 '200~500만원 미만'(50.5%)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의 월평균 소득은 '200만원 미만'(82.6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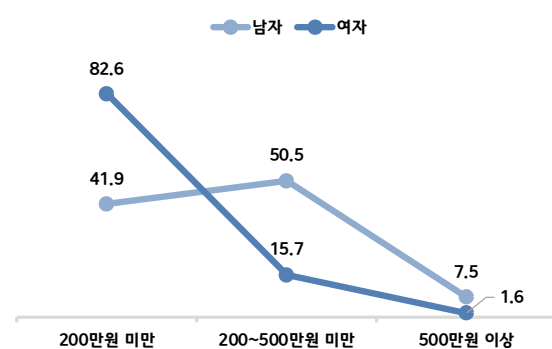
« 연도별 가구 월평균 소득 »

(단위 : %)



«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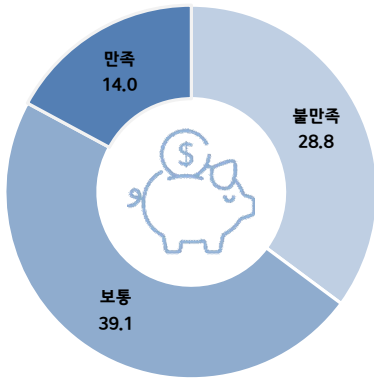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소득 만족도에 대하여 '만족' 14.0%, '보통' 39.1%, '불만족' 28.8%, '해당 없음'은 18.1%로 나타나며, '불만족'이 '만족'에 비하여 14.8%p 높은 비율을 가짐. 지역별의 경우 '만족'의 응답비율이 중부권은 16.2%로 광주인근권(9.2%)에 비해 7.0%p 높게 나타난 반면, '매우 만족'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권(4.9%)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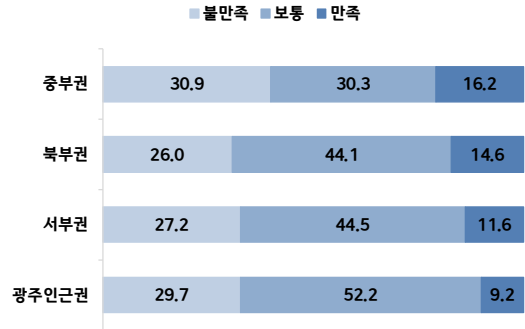
◀◀ 소득 만족도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소득 만족도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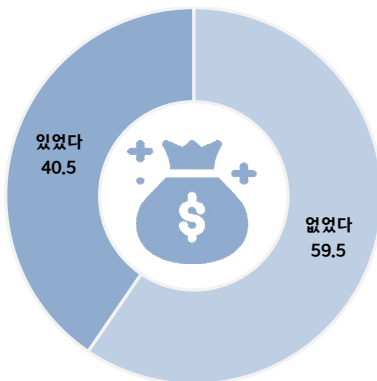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하여 ‘별로 없었다’ 44.8%, ‘가끔 있었다’ 32.9%, ‘전혀 없었다’ 14.8%, ‘매우 자주 있었다’ 7.6% 순으로 응답함
- ▶ 지역별의 경우 ‘없었다’의 응답비율은 북부권(68.2%), 중부권(57.4%)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, ‘있었다’의 응답비율은 광주인근권(47.5%), 서부권(42.8%) 순으로 높게 조사됨.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중부권은 ‘전혀 없었다’와 ‘매우 자주 있었다’가 각각 20.7%, 9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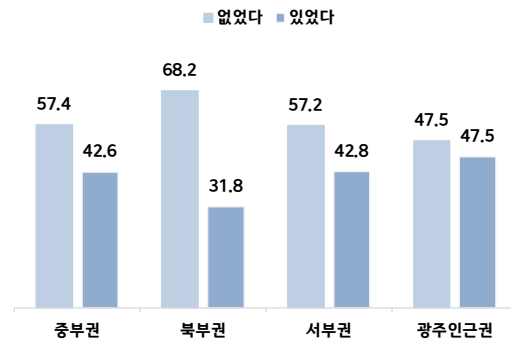
◀◀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여부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여부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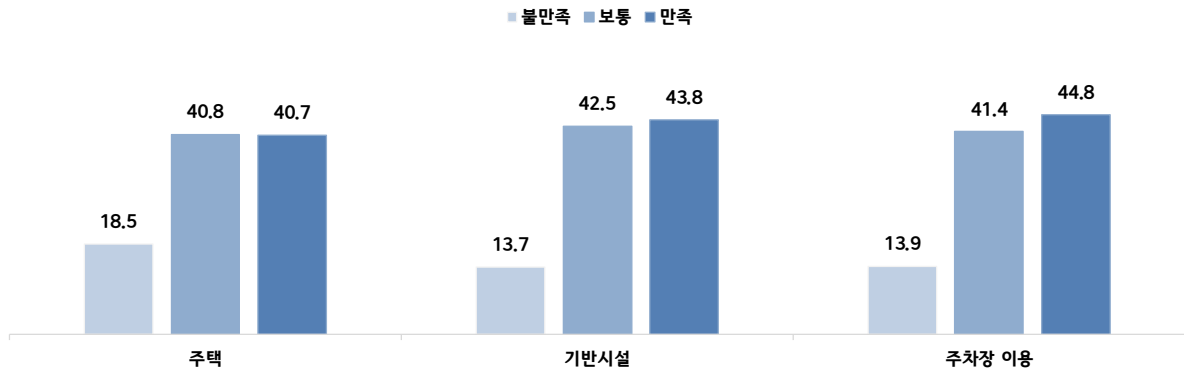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‘만족’의 응답비율이 ‘불만족’보다 높게 응답함. 주택 (시설, 면적, 구조 등)의 만족도는 ‘만족’ 40.7%, ‘보통’ 40.8%, ‘불만족’ 18.5%, 상하수도, 도시가스, 도로 등 기반시설의 만족도는 ‘만족’ 43.8%, ‘보통’ 42.5%, ‘불만족’ 13.7%,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(공간, 시설, 접근성 등)의 만족도는 ‘만족’ 44.8%, ‘보통’ 41.4%, ‘불만족’ 13.9%로 나타남. 주거환경 만족도 중에서 주차장의 ‘매우 만족’ 응답비율은 19.1%, 주택의 ‘매우 불만족’ 응답비율은 4.6%로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가짐

<< 주거환경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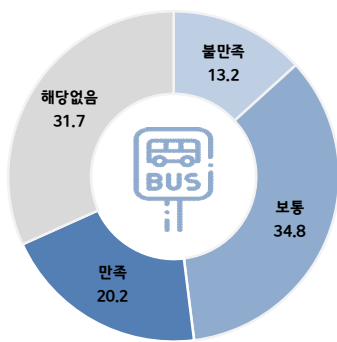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교통수단 만족도 중 택시의 '만족' 응답비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철/경전철이 가장 낮게 나타남. 시내버스/마을버스의 '만족'은 20.2%, '보통' 34.8%, '불만족' 13.2%, 시외/고속버스의 '만족'은 19.1%, '보통' 36.8%, '불만족' 9.8%, 택시의 '만족'은 21.7%, '보통' 37.5%, '불만족' 8.7%, 지하철/경전철의 '만족'은 0.5%, '보통' 2.6%, '불만족' 2.0%로 나타남
- ▶ 시내버스/마을버스 만족도는 서부권과 북부권의 '만족'이 각각 22.2%, 22.1%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시외/고속버스는 여자의 11.7%는 '불만족'으로 남자(8.0%)보다 3.7%p 높게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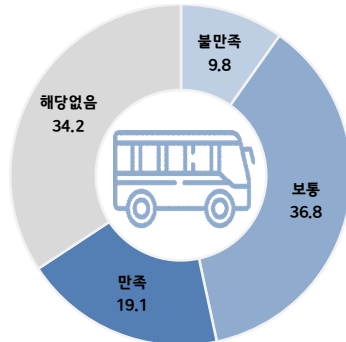
<< 시내버스/마을버스 >>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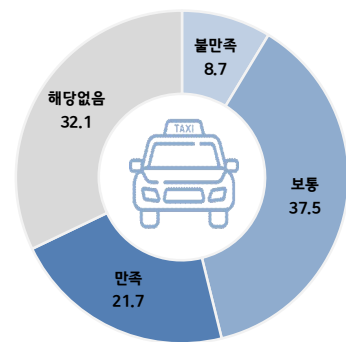
<< 시외/고속버스 >>

(단위 : %)



<< 택시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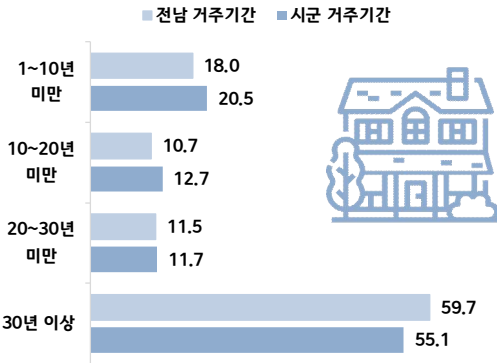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전남 및 시군의 거주기간에서는 '30년 이상'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'1~5년 미만', '5~10년 미만', '20~25년 미만'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. 전남 거주기간이 '30년 이상'인 군민은 59.7% 응답했으며 시군 거주기간이 '30년 이상'인 군민은 55.1%로 나타남
- ▶ 전남의 10년 후 정주의사에 대해 군민의 74.1%('매우 그렇다'(29.6%), '그런 편이다'(44.5%))가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, 시군의 10년 후 정주의사는 '그렇다'가 71.9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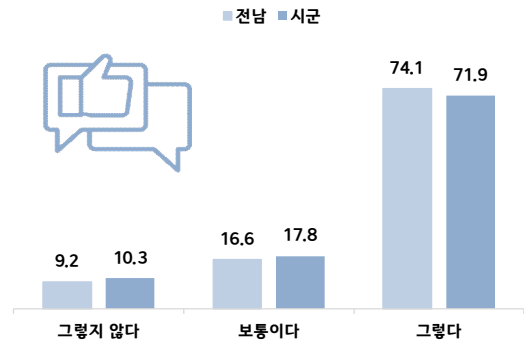
<< 지역거주기간 >>

(단위 : %)



<< 10년 후 정주의사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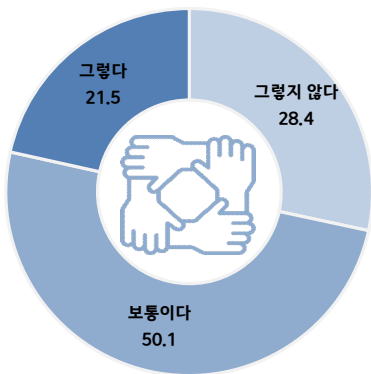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▶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‘그렇다’는 21.5%, ‘보통이다’ 50.1%, ‘그렇지 않다’는 28.4%로 응답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여자의 ‘그렇다’의 응답비율이 남자보다 3.5%p 높은 비율을 가짐. 일자리 충분도에 대하여 ‘그렇다’라는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권 (30.6%)으로 조사된 반면, 중부권은 17.1%로 가장 낮은 비율이 조사됨. 일자리 기회가 충분한가에 대한 문항의 ‘그렇지 않다’는 광주인근권이 34.7%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며 서부권은 24.6%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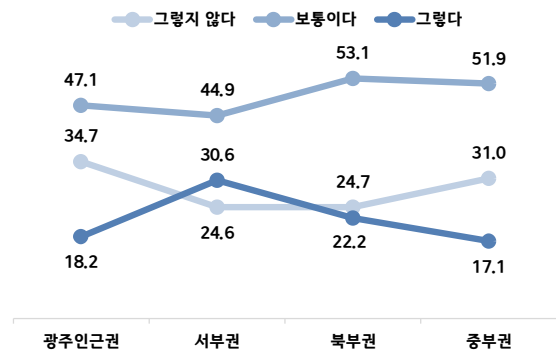
<< 일자리 충분도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일자리 충분도 >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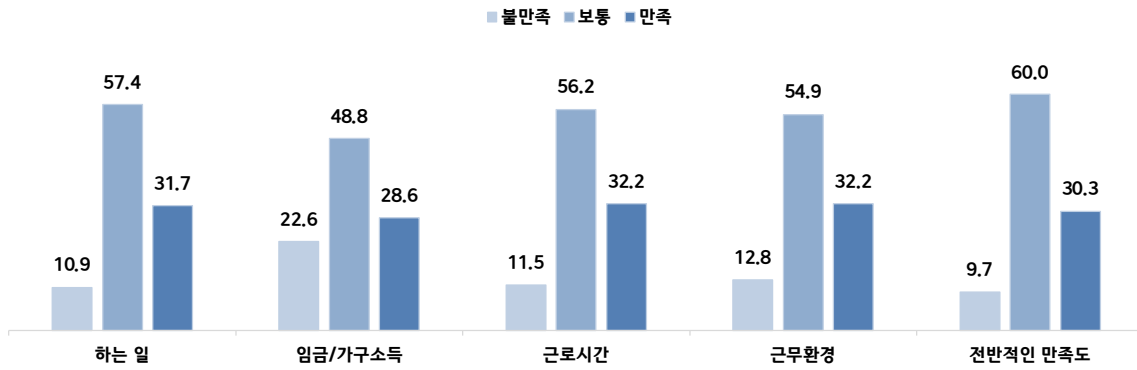


▶ 지난 일주일 간 일을 했던 군민은 60.3%, 하지 않았던 군민은 39.7%로 조사되었으며,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‘만족’ 31.7%, ‘보통’ 57.4%, ‘불만족’ 10.9%, 임금/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‘만족’ 28.6%, ‘보통’ 48.8%, ‘불만족’ 22.6%,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‘만족’ 32.2%, ‘보통’ 56.2%, ‘불만족’ 11.5%,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‘만족’ 32.2%, ‘보통’ 54.9%, ‘불만족’ 12.8%로 나타남.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‘만족’은 30.3%, ‘보통’ 60.0%, ‘불만족’ 9.7%로 응답함

▶ 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‘육아 또는 가사’가 24.1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‘쉬었음’ 21.0%, ‘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’ 12.2%, ‘취업준비’ 6.3%, ‘구직활동’ 3.9% 순으로 응답함

<< 일자리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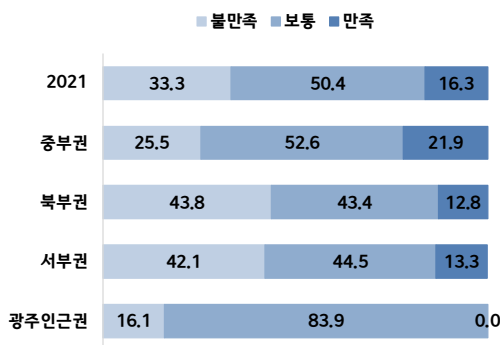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교육환경 만족도 중 보육 환경 만족도는 ‘만족’ 16.3%, ‘보통’ 50.4%, ‘불만족’ 33.3%,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‘만족’ 22.9%, ‘보통’ 48.5%, ‘불만족’ 28.6%, 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는 ‘그렇다’ 11.9%, ‘보통이다’ 47.6%, ‘그렇지 않다’ 40.5%,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는 ‘그렇다’ 14.5%, ‘보통이다’ 52.2%, ‘그렇지 않다’ 22.0%, ‘잘 모르겠다’ 11.3%로 나타남
- ▶ 보육 환경 만족도에 대해 남자는 ‘불만족’을 30.5%가 선택한 반면, 여자는 과반수이상의 비율(58.5%)이 ‘불만족’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. 공교육 환경 만족도에서 북부권의 경우 ‘불만족’이 44.5%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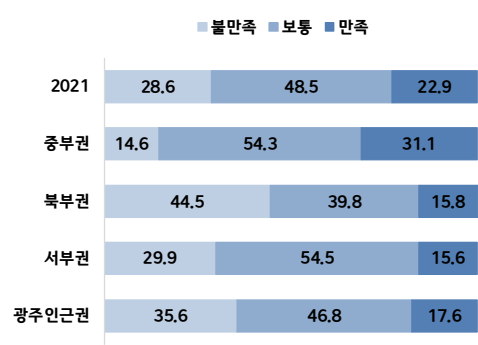
<< 지역별 보육 환경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공교육 환경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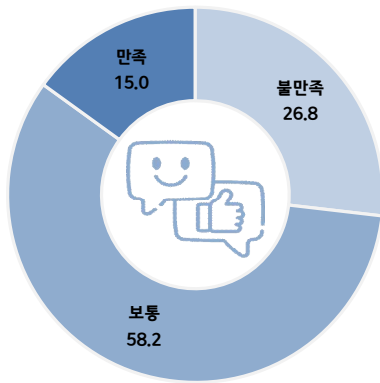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‘만족’ 15.0%, ‘보통’ 58.2%, ‘불만족’ 26.8%로 나타남. ‘만족’의 비율은 중부권에서 20.5%로 가장 높고 북부권에서 8.2%로 가장 낮게 나타남. 북부권의 경우 ‘불만족’이 40.2%로 중부권(20.9%)보다 19.3%p 높은 비율을 보임
- ▶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하여 ‘보통’ 58.6%, ‘불만족’ 27.0%, ‘만족’ 14.4%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며 ‘만족’의 비율이 ‘불만족’보다 12.6%p 낮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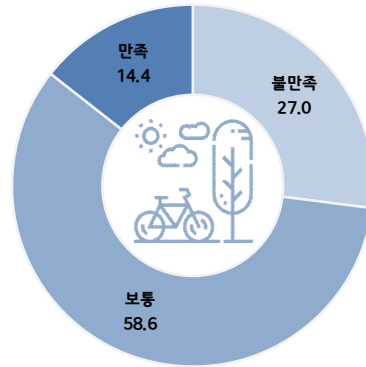
<< 전반적인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<<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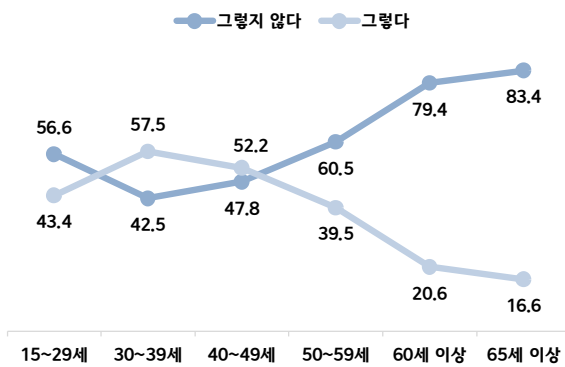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평일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.9%,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.1%로 나타남. 연령별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'그렇다'의 응답비율은 감소하고 '그렇지 않다'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주말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.7%,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.3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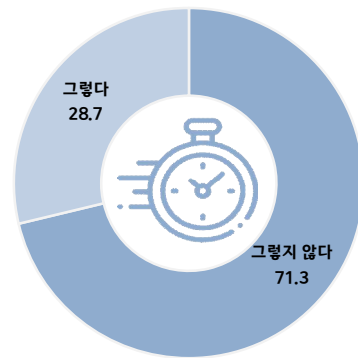
<< 연령별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(평일) >>

(단위 : %)



<<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시도 공통항목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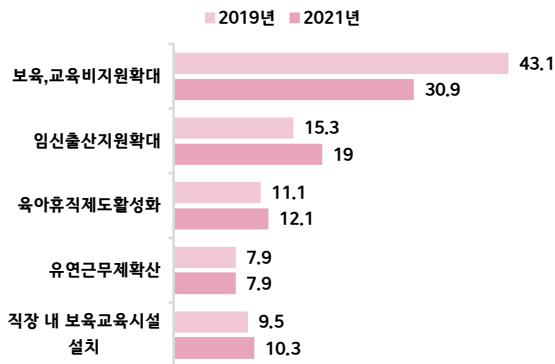
- ▶ 교통수단 만족도에 대하여 시내/마을버스, 시외/고속버스, 택시 중 만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택시(21.7%)로 나타남. 반면 불만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시내/마을버스(13.2%)로 나타남. 시내/마을버스는 전체 군민 68.3%에 해당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**군민들이 희망하는 노선 변경, 배차 시간 조정, 버스 승강장의 위치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**
- ▶ 향후 10년 이후에도 현재 시군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정주의사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1.9%, 보통이다 17.8%, 그렇지 않다 10.3%로 **많은 군민들이 계속해서 장성군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함**. 다만 연령별의 경우 다른 연령들과 비교하여 15~29세는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. 이는 일자리 충분도 문항에서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취업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됨. 따라서 **젊은 연령층을 계속 장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자리 정책 마련**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▶ 장성군민 28.4%가 장성군 내에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. 특히 광주인근권에서 그렇지 않다가 34.7%로 일자리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군민(18.2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. 따라서 **지역별 고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정책**이 필요함
- ▶ 교육환경 만족도 중 **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에 대하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40.5%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군민(11.9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**. 그 중에서도 북부권(52.8%)은 광주인근권(29.2%) 보다 학교 외 교육 기회가 더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므로 필요 정책을 실시할 때 **지역별 응답 결과를 고려한 정책**이 시행되어야 함
- ▶ 장성군민은 장성군의 문화여가시설(접근성과 충분정도)에 대하여 만족(15.0%)하는 비율보다 불만족 (26.8%)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. 특히 북부권에서 불만족(40.2%)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 따라서 **앞선 생계유지 어려움과 교육환경과 더불어 문화여가시설의 확보 및 접근성 향상 등의 지원 정책**을 실시한다면 **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**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

3. 전라남도 항목

- ▶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‘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’가 30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‘임신출산 지원확대’(19.0%), ‘육아휴직제도 활성화’(12.1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. ‘임신출산 지원확대’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반면, ‘유연 근무제 확산’은 30대~50대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
- ▶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응답으로 ‘2명’이 50.1%, ‘3명’(28.4%), ‘1명’(12.2%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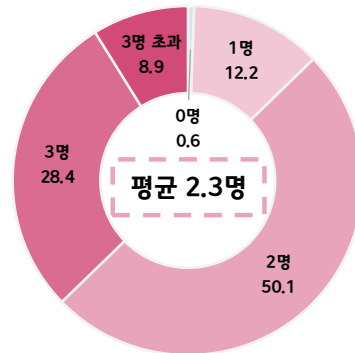
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▶

(단위 : %)



◀ 이상적인 자녀 수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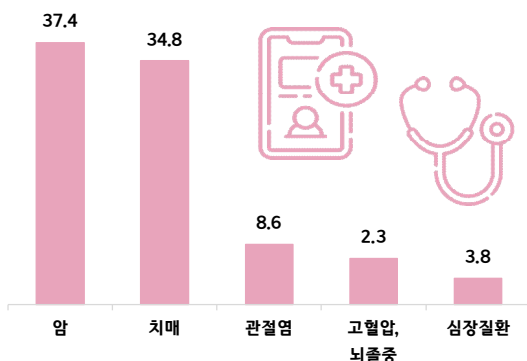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걱정되는 질환으로 ‘암’(37.4%)과 ‘치매’(34.8%)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. ‘암’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반면, ‘관절염’과 ‘치매’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. ‘관절염’은 60세 이상(13.7%)과 65세 이상(15.3%)에서 확연하게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‘피부병’은 특히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걱정하는 질환으로 나타남
- ▶ 걱정하는 이유로 ‘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’가 26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‘삶의 질 저하’(24.6%), ‘의료비 부담’(24.5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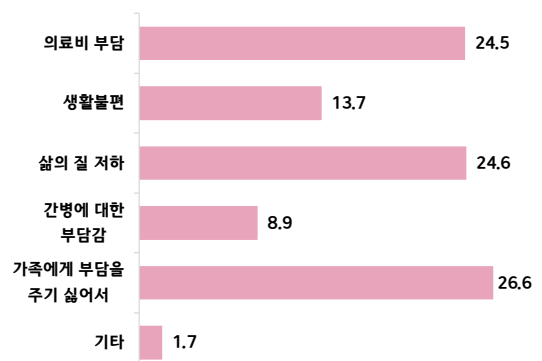
◀ 걱정하는 질환 ▶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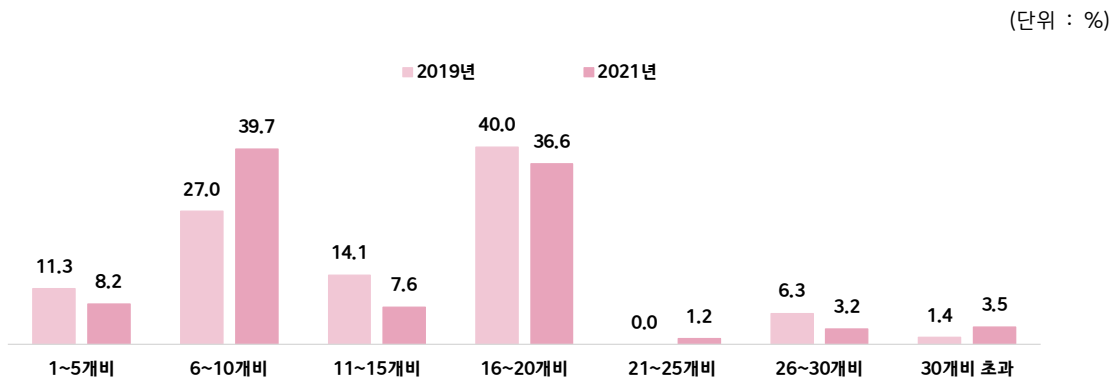
◀ 걱정하는 이유 ▶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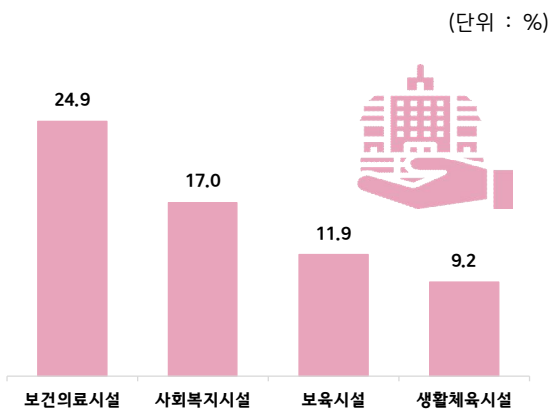
- ▶ 흡연 여부는 ‘피운다’가 14.2%, ‘피우지 않는다’는 85.8%로 나타났으며 피운다고 응답한 군민 중 39.7%는 하루 평균 흡연량이 6~10개비라고 응답함. ‘피우지 않는다’(83.5%)라고 응답한 군민 중 22.0%는 ‘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’라고 응답했으며 ‘피워본 적이 없다’는 78.0%로 조사됨
- ▶ 금연시도를 한 적이 ‘있다’는 48.6%, ‘없다’는 51.4%로 나타남. 금연을 못하는 이유는 ‘스트레스 때문에’ 49.8%, ‘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’(30.8%), ‘금단증세가 심해서’(12.6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

◀◀ 하루 평균 흡연량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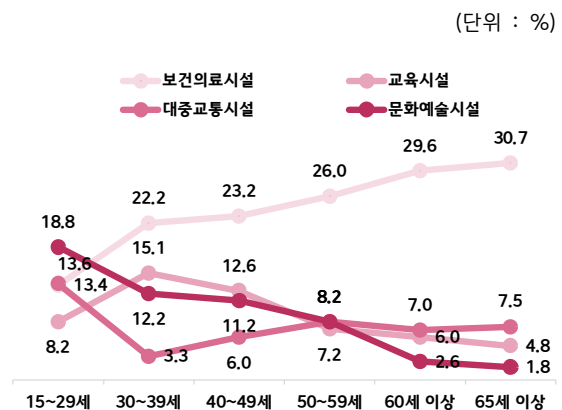


- ▶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‘보건의료시설’이 24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‘사회복지시설’(17.0%), ‘보육시설’(11.9%) 순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
- ▶ ‘교육시설’의 응답 비율은 30~39세와 40~49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‘대중교통시설’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5~29세에서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. ‘문화예술시설’과 ‘생활체육시설’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 조사된 반면, ‘보건의료시설’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조사됨

◀◀ 편의시설 수요 ▶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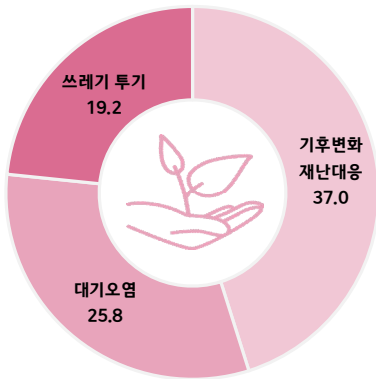
◀◀ 연령별 주요한 편의시설 수요 ▶▶



- ▶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는 ‘기후변화 재난 대응’이 37.0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‘대기오염’ 25.8%, ‘쓰레기 투기’ 19.2% 순으로 나타남. 2019년에는 ‘대기오염(37.5%)’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‘기후변화 재난대응’은 10.9%로 2021년과 비교하여 26.1%p 차이를 보임
- ▶ ‘기후변화 재난대응’과 ‘쓰레기 투기’는 15~29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나는 반면, ‘농약, 화학비료 사용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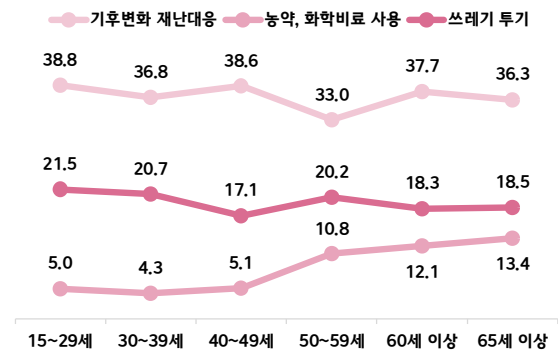
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(상위 3개 항목) ▶

(단위 : %)



◀ 환경문제에 대한 연령별 인식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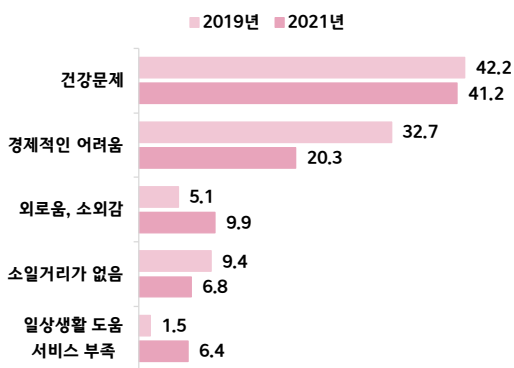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‘건강 문제’가 41.2%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‘경제적인 어려움’ 20.3%, ‘외로움, 소외감’ 9.9% 순으로 조사됨. 북부권의 경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‘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’에 13.4%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비율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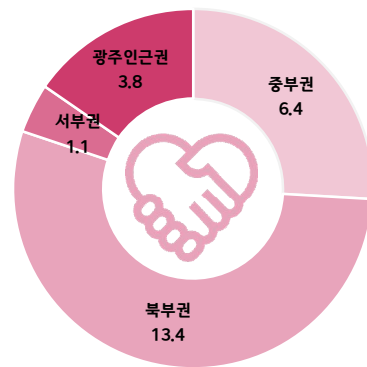
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▶

(단위 : %)



◀ 지역별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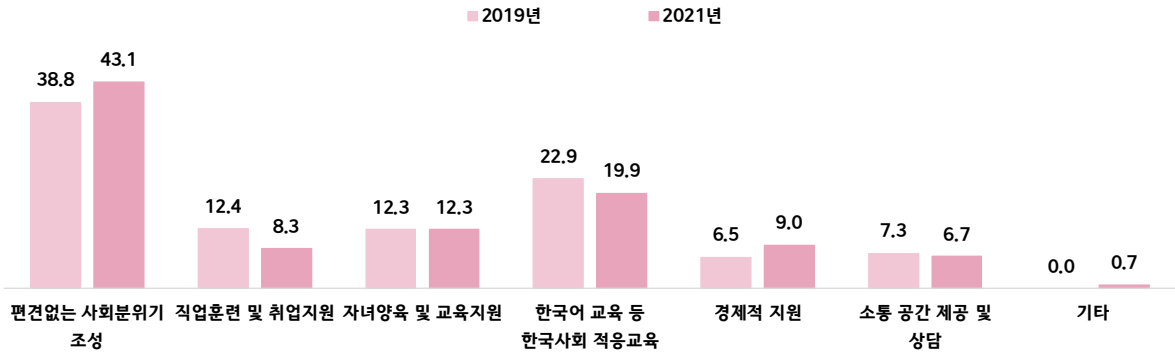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정책이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 1순위인 ‘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’에 대하여 2019년에는 ‘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’(2순위)과 15.9%p 차이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는 ‘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’(2순위)과 23.2%p로 더 큰 격차가 발생함

<< 연도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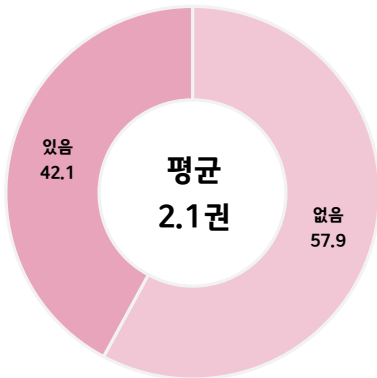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독서 여부에 대하여 ‘없음’ 57.9%, ‘1~5권’ 33.7%, ‘6~10권’ 5.1%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독서량 만족도 ‘충분하다’는 5.9%로 2019년(8.5%)에 비해 소폭(2.6%p) 감소함
- ▶ 연령대가 높을수록 ‘없음’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‘1~5권’이 높은 응답 비율을 가짐. 15~29세는 4.2권으로 평균 독서량이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은 0.7권으로 독서량이 가장 적음
- ▶ 2019년과 마찬가지로 독서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‘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’가 37.4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‘일이나 공부가 바빠서’가 28.2%의 비율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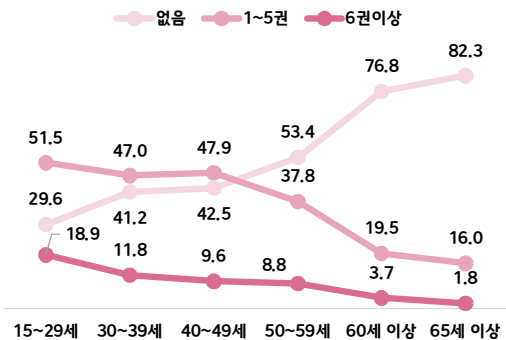
<< 독서여부 >>

(단위 : %)



<< 연령별 독서량 비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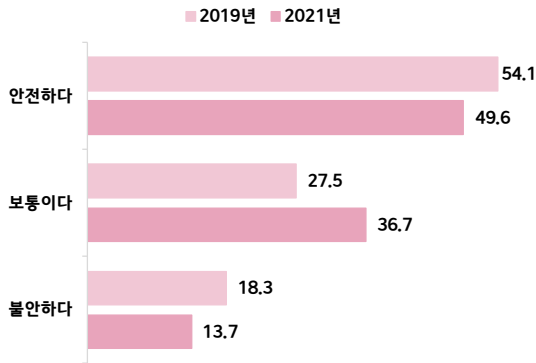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야간활동 안정성에 대하여 ‘안전하다’는 49.6%, ‘보통이다’ 36.7%, ‘불안하다’ 13.7%로 나타났으며 광주인근권의 경우 야간활동에 대해 ‘안전하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7.4%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
- ▶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‘가로등이 없어서’가 60.9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‘인적이 드물어서’ 34.8%, ‘우범지역이므로’ 0.8% 순으로 응답함. 대처방법으로 2019년에는 ‘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’가 42.9%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반면, 2021년에는 ‘무섭지만 그냥 다닌다’가 61.4%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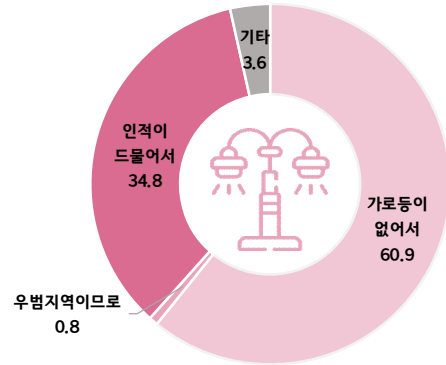
<< 연도별 야간활동 안전성 >>

(단위 : %)



<<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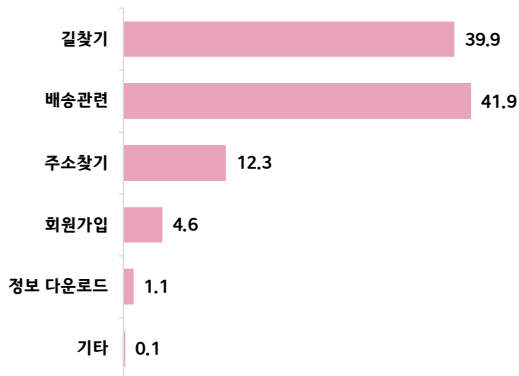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도로명주소 활용여부에 대하여 ‘활용한다’는 73.8%, ‘활용하지 않는다’는 26.2%의 응답 비율을 보임. 15세~29세가 ‘활용한다’에 93.3% 응답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. 편리성 여부에 대하여 ‘편리하다’는 85.2%, ‘불편하다’ 3.6%, ‘보통이다’ 11.2%로 조사됨
- ▶ 주로 활용하는 분야에 대하여 ‘배송관련’이 41.9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‘길찾기’ 39.9%, ‘주소찾기’ 12.3% 순으로 나타남.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 ‘홍보 부족’의 응답 비율이 41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‘옛 주소에 익숙’ 39.9%, ‘체계가 어려움’ 12.3% 순으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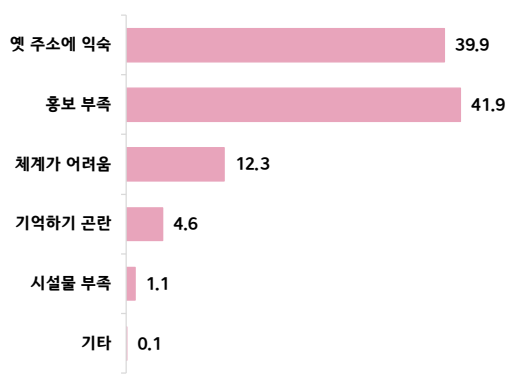
<< 주로 활용하는 분야 >>

(단위 : %)



<< 활용이 불편한 이유 >>

(단위 : %)



- ▶ 전라남도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 대하여 ‘주변사람들’이 26.5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‘TV’ 25.7%, ‘전남 도정 소식지’ 17.4% 순으로 나타남. 시·군정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 대하여 ‘주변 사람들’이 38.8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‘TV’ 19.4%, ‘인터넷’ 16.0% 순으로 나타남

전라남도 항목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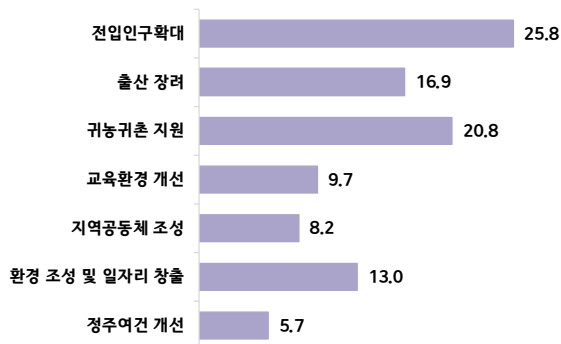
- ▶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60대 미만은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, 60세 이상의 32.6%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질환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. 또한 60세 이상에서 간병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. 따라서 **질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연령별 응답 결과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**
- ▶ **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문제(41.2%)**로 응답함. 일상 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(6.4%)은 2019년(1.5%)에 비해 4.9%p 높게 응답함. 따라서 **앞선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문항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령층은 건강문제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** 장성군은 60대 이상이 전체 군민 중 39.2%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**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정책이 필요함**
- ▶ 장성군의 외국인 인구는 2020년 기준 993명이며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가짐. 지역에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**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이 필요함.** 이를 위해 **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**이 43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. 따라서 다문화 가정과 지역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과 군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▶ **야간활동 안정성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군민은 49.6%로 2019년(54.1%) 대비 4.5%p 감소한** 모습을 보임.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으로 가로등이 없어서가 60.9%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적이 드물어서가 34.8%로 나타남. 하지만 야간활동 안정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5명 중 3명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(61.4%)로 응답함. 따라서 **군민들의 야간활동 시 안전성을 위하여 가로등 확충 및 안전 귀가서비스와 같은 정책 도입이 시급함**
- ▶ **도로명주소 활용 편리성 여부에 대해서 편리하다가 81.0%로 2019년(70.3%) 대비 10.7%p 증가한** 모습을 보인 반면, **활용하는 비율은 4.9%p 감소함.**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로 홍보부족이 41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. 주로 고령층 군민이 홍보 부족에 응답했으므로 **체계에 대한 교육 및 안내물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**

4. 장성군 특성항목

- ▶ 장성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‘전입인구 확대’(25.8%)와 ‘귀농귀촌 지원’(20.8%)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함. 다음으로 ‘출산 장려’(16.9%),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(13.0%)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전입인구확대’(29.4%)가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, 광주인근권의 경우 ‘귀농귀촌지원’에 가장 높은 비율(27.4%)로 나타남. 서부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로 ‘지역공동체조성’(12.9%)에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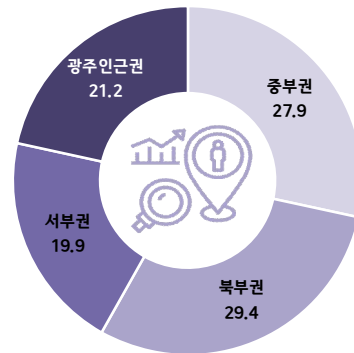
◀◀ 인구감소 대응정책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전입인구확대 응답 비율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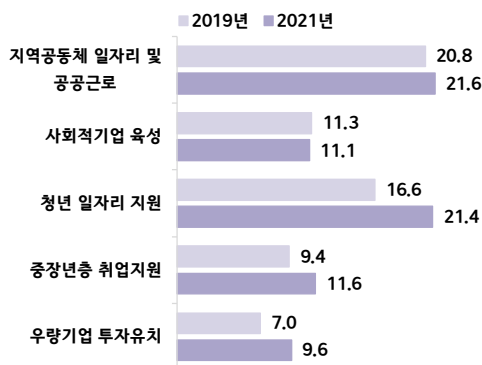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집중 추진 분야로 ‘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’(21.6%), ‘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’(21.4%), ‘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’(11.6%), ‘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’(11.1%), ‘우량기업 투자유치’(9.6%) 순으로 나타남.
- ▶ 청년층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(38.2%)로 ‘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’에 응답한 반면, 60세 이상(30.2%)과 65세 이상(32.1%)은 ‘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’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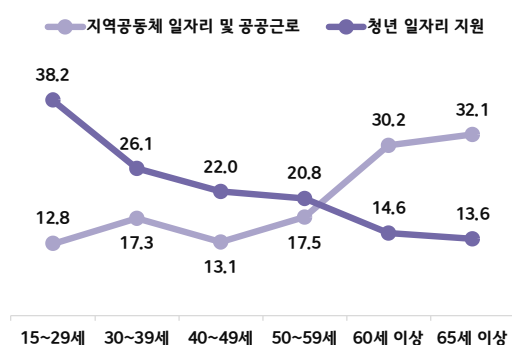
◀◀ 연도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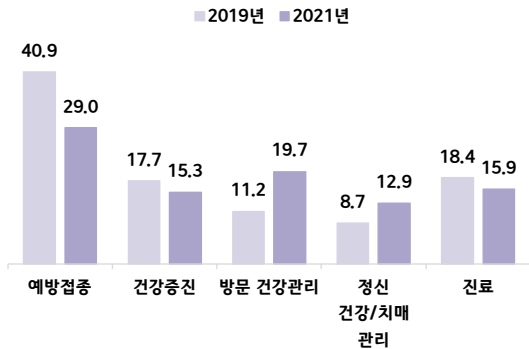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 내 보건소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의료서비스로 ‘예방접종’이 29.0%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, ‘방문건강관리’(19.7%), ‘진료’(15.9%), ‘건강증진’(15.3%) 순으로 응답함
- ▶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. ‘예방접종’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반면, ‘방문건강관리’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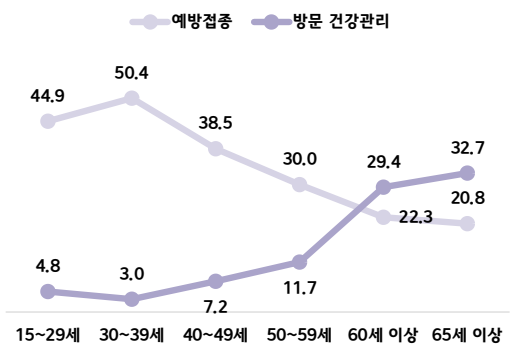
◀◀ 연도별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연령별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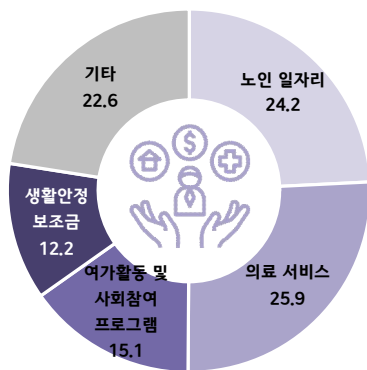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노인 복지 서비스로 ‘의료 서비스’(25.9%), ‘노인일자리’(24.2%)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. 60세 미만의 연령대의 경우 ‘의료 서비스’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,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‘의료 서비스’와 ‘노인 일자리’의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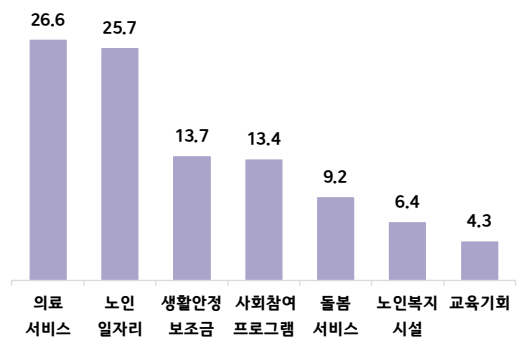
◀◀ 노인 복지 서비스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60세 이상의 노인 복지 서비스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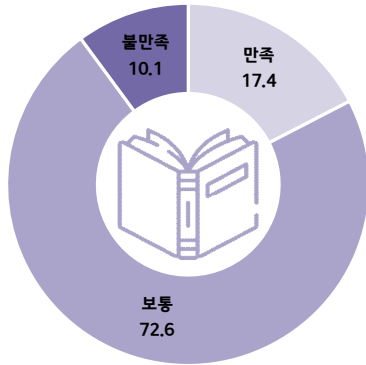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교육환경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72.6%가 ‘보통’에 응답하고 17.4%가 ‘만족’을 선택함. 북부권의 경우 ‘보통’(84.3%)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이 응답한 반면, ‘만족’의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. 광주인근권의 경우 만족이 22.6%로 권역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.
- ▶ 30대와 40대의 경우 ‘약간 불만족’(각각 20.2%, 14.6%)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30~39세(20.2%)와 65세 이상(3.2%)의 응답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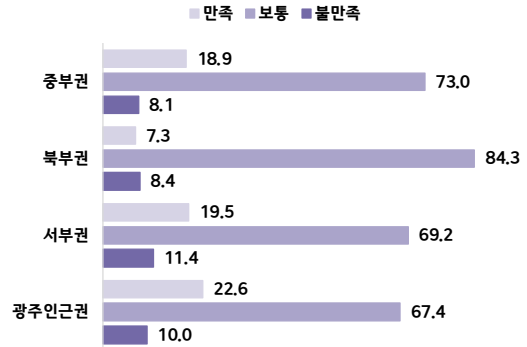
<< 교육환경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교육환경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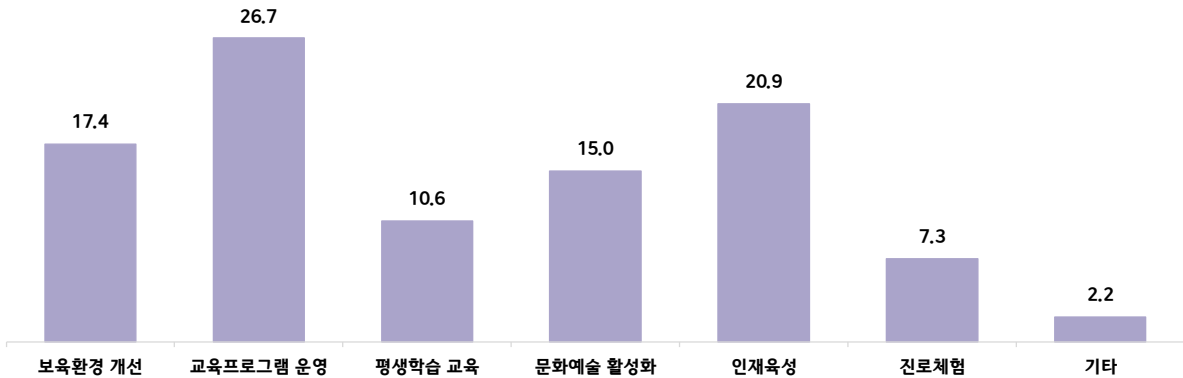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‘교육프로그램 운영’(26.7%), ‘인재육성’(20.9%), ‘보육 환경 개선’(17.4%), ‘문화예술 활성화’(15.0%), ‘평생학습교육’(10.6%), ‘진로체험’(7.3%) 순으로 조사됨
- ▶ 40세 미만의 연령대의 경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이 평균과 다르게 나타남. 15~29세는 ‘인재육성’(28.2%)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‘교육프로그램 운영’(18.2%), ‘문화예술활성화’(17.2%) 순으로 나타남. 30~39세는 ‘교육프로그램운영’과 ‘보육 환경 개선’이 각각 24.4%, 23.5%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

<< 교육환경 개선 정책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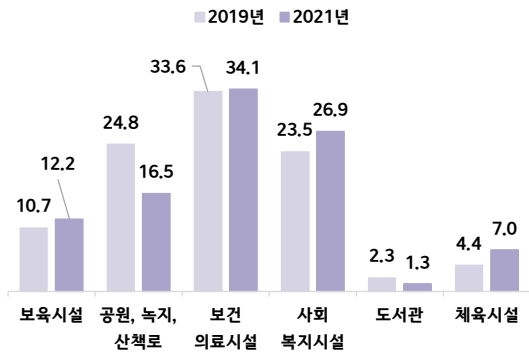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 ‘보건 의료 시설’이 34.1%, ‘사회복지 시설 (장애인·노인 복지 시설 등)’(26.9%), ‘공원, 녹지, 산책로’(16.5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. ‘광주인근권’은 상위 3개 항목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, ‘북부권’은 ‘보건의료 시설’(38.9%)과 ‘사회복지시설’(36.1%)에 대한 응답에 집중되어 나타남
- ▶ 남자의 경우 ‘보건의료시설’(36.2%)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 외 항목은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, 여자는 ‘보건의료시설’(36.0%), ‘사회복지시설’(27.7%), ‘공원, 녹지, 산책로’(22.9%)에 응답비율이 집중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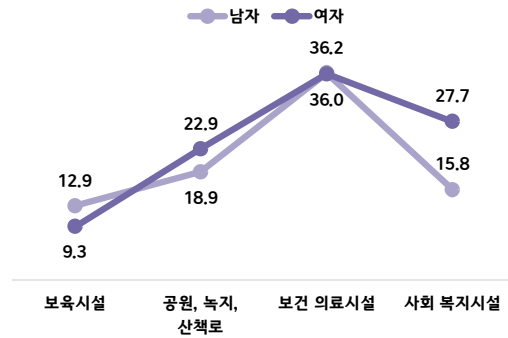
◀ 연도별 교육환경 개선 정책 ▶

(단위 : %)



◀ 성별 교육환경 개선 정책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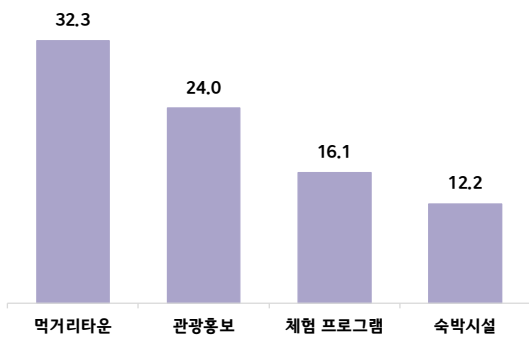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‘먹거리 타운’(32.3%), ‘관광홍보’(24.0%)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, ‘체험 프로그램’(16.1%), ‘숙박시설’(12.2%), ‘교통인프라’(8.9%), ‘관광자원발굴’(6.2%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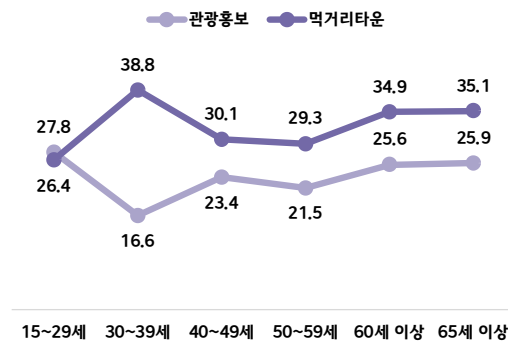
◀ 관광 활성화 추진 정책 ▶

(단위 : %)



◀ 연령별 관광 활성화 추진 정책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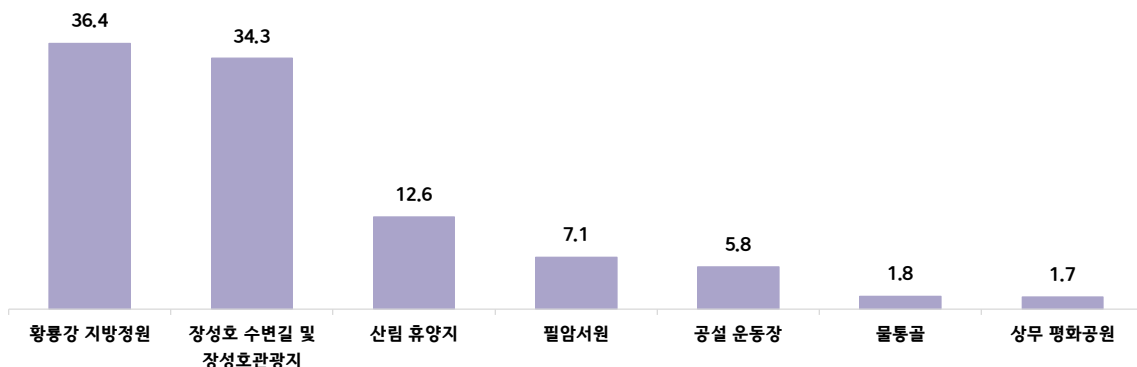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민이 가장 기대되는 관광경쟁력 사업으로 ‘황룡강 지방정원’(36.4%), ‘장성호 수변길 및 장성호관광지’(34.3%)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, ‘산림휴양지’(12.6%), ‘필암서원’(7.1%), ‘공설운동장’(5.8%) 순으로 나타남

◀ 관광경쟁력 사업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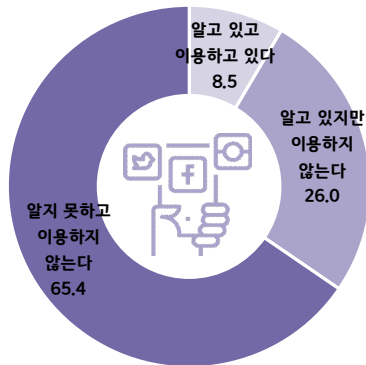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를 ‘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’가 26.0%, ‘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’가 8.5%, ‘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’가 65.4%로 나타남. 공식 SNS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. 15~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(62.9%)의 군민이 공식 SNS를 ‘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’에 응답함
- ▶ 이용하는 공식 SNS 1순위는 ‘카카오 채널’이 52.9%로 차지하고, ‘인스타그램’이 24.7%, ‘페이스북’(16.1%), ‘유튜브’(14.9%), ‘블로그’(13.9%)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임. 20대 미만은 이용하는 공식 SNS로 ‘페이스북’에 54.9%로 응답한 반면, 30대는 ‘인스타그램’(60.4%)과 ‘카카오채널’(59.6%)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른 SNS보다 ‘카카오채널’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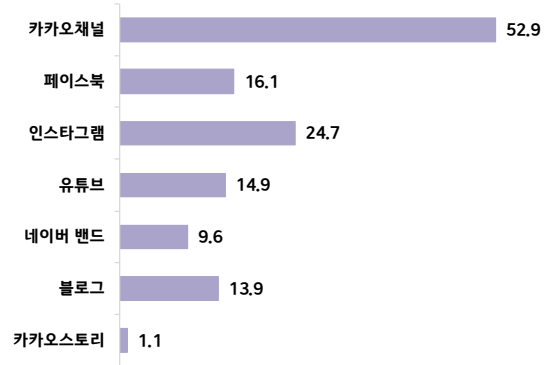
◀ 공식 SNS 인지 여부 ▶

(단위 : %)



◀ 이용하는 공식 SNS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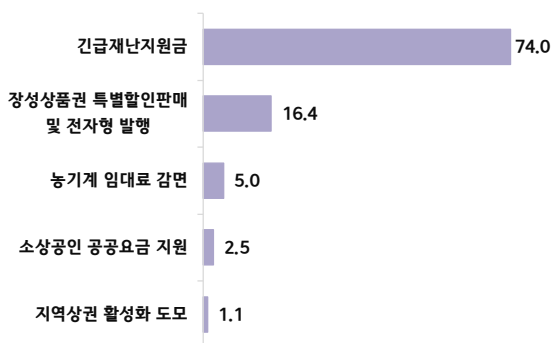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‘긴급재난지원금’이 74.0%로 나타남. ‘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전자형 발행’(16.4%), ‘농기계 임대료 감면’(5.0%), ‘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’(2.5%), ‘지역상권 활성화 도모’(1.1%) 순으로 응답함
- ▶ ‘긴급재난지원금’에서 광주인근권은 86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. 광주인근권의 장성군민은 2순위로 ‘농기계 임대료 감면’(6.5%)에 응답한 반면, 그 외 지역은 ‘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전자형 발행’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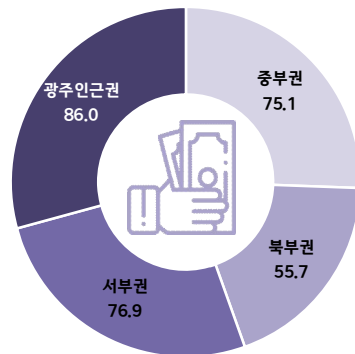
◀ 코로나19 대응 정책 ▶

(단위 : %)



◀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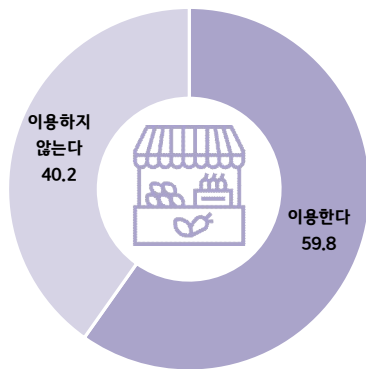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민의 59.8%가 전통시장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함. '이용한다'에 가장 높게 응답한 연령대는 '65세 이상'(73.4%)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'이용한다'에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▶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'다양하지 않은 물품'이 37.4%로 나타나며, '구매 방법 불편'이 20.7%, '접근이 어려움'이 19.5% 순으로 나타남.
- ▶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들 중 '다양하지 않은 물품'(42.5%)과 '구매방법 불편'(29.2%)에서 중부권의 장성군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며 광주인근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'접근성이 떨어짐'(31.5%)이라는 항목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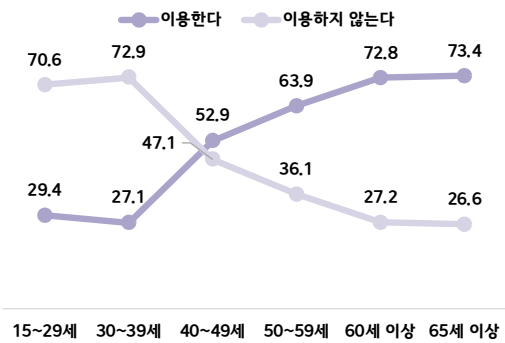
<< 전통시장 이용 여부 >>

(단위 : %)



<<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 여부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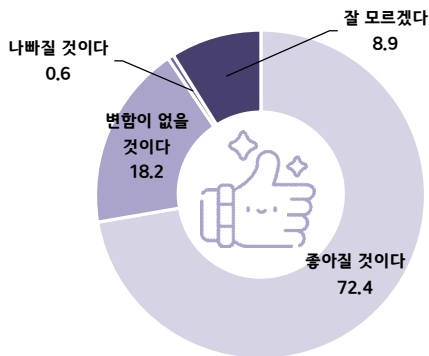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생활여건이 '좋아질 것이다'(매우+다소)라고 기대하는 응답이 72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, '변함이 없을 것이다'가 18.2%, '나빠질 것이다'(다소+매우)가 0.6%, '잘 모르겠다'는 8.9%로 조사됨
- ▶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.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활여건이 '좋아질 것이다'라고 기대하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반면, 연령대가 낮을수록 '변함이 없을 것이다'와 '나빠질 것이다'가 높은 비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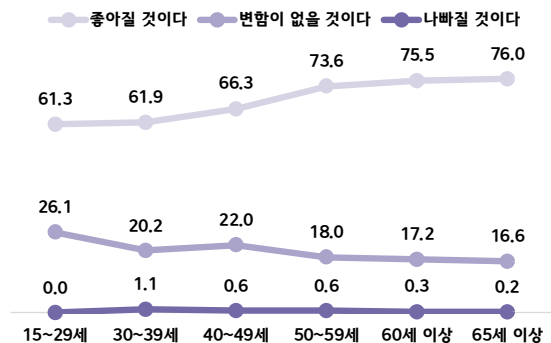
<< 생활여건 변화 기대 >>

(단위 : %)



<< 연령별 생활여건 변화 기대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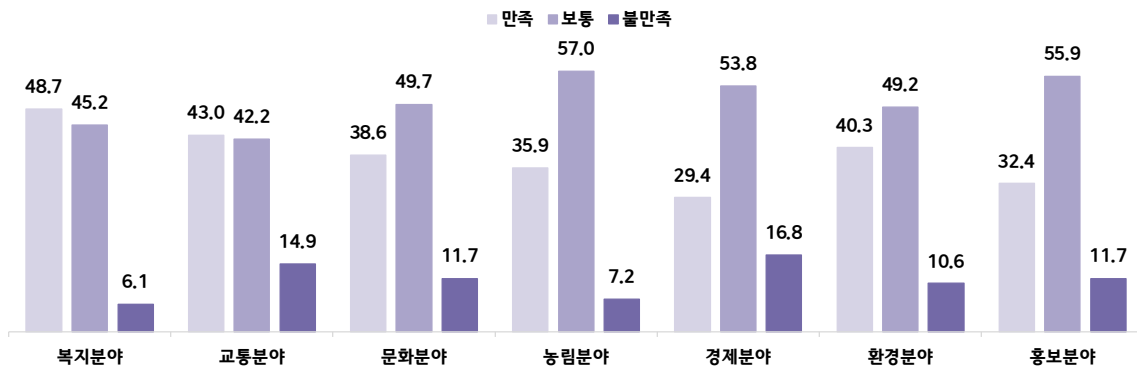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복지, 교통, 문화, 농림, 경제, 환경, 홍보 등 7개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'만족'(매우+약간)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복지분야에서 '만족'(매우+약간)(48.7%)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, 교통분야, 환경분야에서 각각 '만족'(매우+약간)의 비율이 43.0%, 40.3% 순으로 조사됨. 복지와 교통 분야에서 2019년에 비하여 2021년에 만족 비율이 유지 또는 소폭 상승하고 문화분야에서 2019년(44.5%)에 비하여 2021년(38.6%)의 만족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
- ▶ 군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'만족'은 '매우 만족'(4.5%), '약간 만족'(34.4%)을 합하여 38.9%로 나타나고, '보통'이 52.9%, '불만족'은 '약간 불만족'(6.4%), '매우 불만족'(1.8%)을 합하여 8.2%로 나타남

<< 분야별 군정에 대한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장성군 개별항목 총괄

- ▶ 2020년 기준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4,46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, 연도별 순이동 또한 -1,07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. **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** 전입장려금, 국적취득 축하금,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장려금 등을 통한 **전입인구 확대(25.8%)와 귀농귀촌 지원(20.8%) 정책이 가장 효과적**이라고 응답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장성군의 인구감소의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됨
- ▶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에 대하여 예방접종 29.0%, 방문건강관리 19.7%, 진료 15.9%, 건강증진 15.3% 순으로 응답함. **방문건강관리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짐.** 이와 같은 결과로 노인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 또한 실버 복지 1번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노인 복지 서비스문항에서도 의료서비스(25.9%)에 가장 많이 응답한 만큼 **의료 관련 지원 정책이 필요할** 것으로 보임
- ▶ 장성군의 교육환경 만족도에서 만족은 17.4%로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(26.7%), 인재육성(20.9%), 보육환경 개선(17.4%), 문화예술 활성화(15.0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. 따라서 **교육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교별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장학금 지원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함**
- ▶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를 군민 65.4%가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에 응답함. 연령별로 이용하는 공식 SNS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**카카오 채널 (52.9%)과 인스타그램(24.7%)**을 이용하므로 이 두 가지의 **공식 SNS 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향상**시키는 것이 필요함.
- ▶ 2021년 군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**2019년 대비 만족의 비율이 8.0%p 감소함(46.9% → 38.9%)**. 군정의 만족도에 대하여 복지분야(노인, 장애인, 여성, 보건 등)의 만족 비율은 48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분야(도로, 대중교통, 주정차)(43.0%), 환경분야(상하수도, 폐기물 등)(40.3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. 반면 경제분야에서 불만족 비율이 16.8%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. 따라서 **지역경제, 일자리,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** 것으로 보임